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 21면에서 계속

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하나 건진다, 무명을 벗겨 준다 하더라도 그냥 소의 마음을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 버리는 거죠. 나의 그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바로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 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한다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 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그 영혼은 내가 돼 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소의 머리를 방망이로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에 달려 있죠. 소도 바깥으로, 달구지를 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그러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바로 소가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만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을 치면 누진으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즉 말하자면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죠. 이 몸뚱이 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그렇게 통신이 되면 지금 이것이 어떻고 어떻고 어떤 건가를 전부 다 알게 돼요.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둘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아래로는 둘이 아닌 도리로 제도하면서 자꾸 안을 치면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 해 주고 모두 같이 들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악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질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들 하는데 악한 인연이 왔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게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부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레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선악의 인연을 다 수용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게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두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 소리예요, 한 구멍에다가.

받아들이라는 이치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했다, 접근을 해 온다, 망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소립니다. 그 왜냐. 전력에 비유한다면 어떤 용도에 쓰든 전력이 똑같듯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나 좋게 하는 사람이나 그 전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리만리도 멀다 하지 않고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에 그 마음과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응신이라고 그러죠. 만 보살(萬菩薩)이 응신으로 화해서 각계각층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 나투어 주신다. '나투어 준다' 하는 거는 병을 앓는 데는 의사가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돼 주고, 또 좀 더 살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칠성이 돼 주고, 이렇게 나툰단 말입니다. 딴 걸로 화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꾸자꾸 바뀌어서 만나고, 바뀌어서 말하고, 바뀌어서 듣고, 바뀌어서 보고, 발자국을 떼어 놔도 딴 데를 자꾸 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모든 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도 하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차차차차 잘못되는 그 자체가 잘되게끔 자꾸 연결이 돼서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야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건지라는 거지, 악한 거를 버리게 되면 인과가 돼서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과 선을 몽땅 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그냥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남이 그르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도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깐 그렇게 해.' 하고서 거기다 놨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차례차례로 녹음을 하죠? 녹음한 대로 차례차례로 먼저 한 거부터 나오죠. 나중에 한 거는 맨 끄트머리로 나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과거에서부터 녹음이 돼서 차례차례로 쌓여졌다고 할까요? 쌓여진 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업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딴 사람은 그렇게 잘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하고 오는 사람 앞에는 아무 말 없이 "정성이 지극하면 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업이 너무 쌓여서 그게 모두 다 녹아야 되니까 나온 자리에다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지면서 줄어들 텐데, 그래서 그게 거반거반 다 됐으면 '어, 이제 거반거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악업들이, 모두 나쁜 고가 쌓인 것이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 있고 지혜롭고 이래야만이 입력된 걸 무난히 다 폐지시킬 수가 있죠. 새로 좋은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일이 안 풀려 마음이 힘듭니다

질문 요즘은 집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잘 안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을 보니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한 듯하여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채찍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보세요, 싹은 무조건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싹 한 잎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다면 그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싹은 뿌리로부터만 나올 수 있고, 뿌리가 썩질 않아야만이 싹도 싱싱하게 푸르르게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뿌리를 놔두고도 그 싹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면 괜히 '아이고, 이거 바람에 또 날리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뿌리가 있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도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몸 안의 생명체들이 제가끔 댁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거를 맡겨 놓아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댁이 이론으로, 말로 아무리 공론을 해도 그것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육안, 또는 그냥 이론적인 말로는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마음의 선장한테다가 일임하면 마음의 선장만이 그걸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선장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런다면, 나는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지금 생명들을 다 거느리고 사는 집합소며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공생이지 댁의 몸뚱이에서 생명이 하나라도 튀어나와서 따로 살 수 있습니까? 따로 살지 않죠? 댁의 몸속에서 다 같이 살죠? 그러니까 공생이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볼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들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산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똥을 누었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모든 거를 합해서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이 주인공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뿌리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 믿고 거기다가 맡기면 다 거기서 다스려서 해 줄 텐데, 왜 관리인 심부름꾼이 그렇게 참섭을 합니까? 일종의 종과 같은 건데. 서로가 공생이고 공용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서로가 소임을 맡아서 제가끔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말입니다. 나사가 하나만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지금 공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만 산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혼자 발버둥이를 치고 애쓸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고 거기에 일임해 버려라 이거예요, 전부! 나는 없어요. 나 혼자가 없어요. 공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이니라. 모두가 공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 답답하다 그런다면 답답한 거는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시원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나옵니까? 그러니 시원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답한 거는 그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내던지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서 걱정을 합니까.

쇠든지 금이든지 용광로에다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물질적인 모두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바뀌져서 나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믿어서 맡기지 못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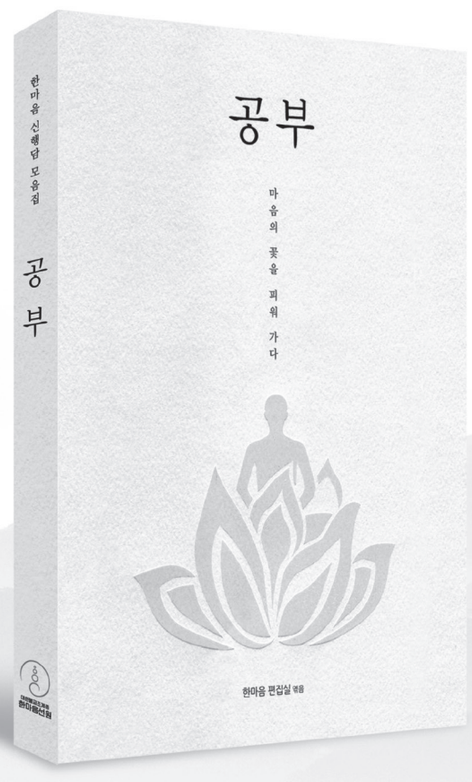
법당에 참배하는 마음

질문 요즘 개인적으로 사찰 순례를 하고 싶어서 휴일이면 전통 사찰을 인연 닿는 대로 둘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법당에 가서 참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배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그게 간단해요. 만 개의 사찰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만 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올릴 때, 내가 그랬죠? 이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서 참배를 올릴 때 왜,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는 노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 아니게 '주인공!' 하면 전체가 모두 하나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셔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 하면 그냥 그 부처와 나, 일체가 다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히 생각하고 하면 그대로 그 부처님 마음도 거기에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하하하.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써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해 주고 같이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